

“AI 확장·스테이블코인 사업 박차… 혁신경영으로 1위 수성”

2026 카드사 생존전략

삼성카드

작년 3분기 누적당기순익 4973억
전년비 감소했지만 업계 1위 굳혀
올해 ‘뉴 모니모’ 중심 신기술 확산
PLCC 등 유통사와 협업 가능성도

삼성카드의 새해 키워드는 ‘혁신 경영’이다.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형식과 틀을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의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 더 과감한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 불확실한 경영환경… ‘생존’ 문제

삼성카드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973억원으로, 순이익 기준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신한카드(3804억원)와 순이익 격차를 벌리며 왕좌를 탈환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지만 업계 1위에 오른 것이다. 이를 두고 일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삼성카드

각에서는 카드업계의 기존 수익 모델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사장이 올해 완벽한 체질 개선을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사장은 신년사에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생존해야 한다”면서 “기존 수익 구조에 안주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신기술 도입·새 비즈니스 모델 개발

김 사장은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신기술 도입과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언급했다.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확장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카드는 올해 모니모를 중심으로 신기술을 적용·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모니모는 삼성금융사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하나로 모은 통합형 앱으로, 지난 2022년에 출시됐다. 출시 2년 4개월 만에 1000만 회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10월 월이용자수(MAU) 760만 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삼성카드는 지난해 12월 모니모를 ‘뉴(NEW) 모니모’로 개편, 고객별 맞춤 기능을 추가했다.

삼성카드 한상민 모니모담당 상무는 “앞으로 인공지능(AI)·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자산관리·라이프케어 등 고객이 가장 필요한 부문에서 모니모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방위적 협업 의지

김 사장은 올해 다양한 업권과 전방위적인 협업 계획도 시사했다. 김 사장은 “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경쟁 환

경 속에서 전방위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 확대,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크 기업과의 협업 등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도 삼성카드는 PLCC 부문 유통사들과의 협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스타벅스, 번개장터, G마켓, 오아시스 등과 손잡고 PLCC 카드를 잇달아 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무신사와의 협업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카드가 PLCC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도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삼성카드의 PLCC 확대 전략은 유효할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020년 전후 화제를 모았던 PLCC 시장이 지난해부터 제휴 계약이 만료되면서 판도가 변화하는 모습”이라며 “현재 PLCC 시장의 선두 주자로 나섰던 배달의민족, 스타벅스 등이 계약 만료 후 각각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양재영 NH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부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 CRO 등 참여 리스크관리 전략회의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회의실에서 NH농협금융 전 계열사 위험관리최고책임자(CRO)와 리스크 실무책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협금융 리스크관리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금융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특강과 함께 올해 자회사별 리스크관리 현황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NH농협금융은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를 반영해 신용·시장·유동성·운영리스크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시나리오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RORWA 등 리스크 대비 수익성 지표를 중심으로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적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양재영 NH농협금융지주리스크관리 부문 부사장은 “2026년에도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NH농협금융은 자회사 간 협업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그룹차원의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한층 고도화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부실금고 관리·감독 강화 새마을금고, 인력 58명 확충

새마을금고가 신년 조직개편을 통해 건전성 관리 및 감독 인력을 최대 58명 확충한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감독 인력을 늘리고, 검사대상 금고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권 행사에 나선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신년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골자는 부실 금고 관리·감독 조직 인력 확대다.

금융당국 강력 감독권 행사 영향 금고감독위 신임 위원 선출 등 확충 금융위서 전담인력 10명 신규투입

먼저, 금고감독위원회 정원을 기존 210명에서 237명으로 늘려 지역 금고 현장 감독 인력을 확충한다. 지역 금고 합병 검토 조직인 금고구조개선본부 정원은 27명에서 58명으로 증원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경우 신임 위원도 새롭게 선출한다.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선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의 내부 감독 인력 확대는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 10명을 신규 투입했다.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과 중소금융검사2국에 5명씩 배치된다.

검사대상 금고 수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새마을금고의 검사대상 금고 수를 지난해 32개에

서 올해 57개로 약 1.5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특별 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검사 대상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려 35개 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외부적으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체제가 강화되면서 금고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제2기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서 건전성 관리 및 부실 금고 정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두고 “새마을금고가 내부에서 건전성 관리 감독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관련 부서 인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9년 체계화된 금고 검사를 위해 금고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분산된 지역 금고 검사인력을 금고감독위원회로 통합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2024년에는 새마을금고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새롭게 설립했다. 금고개선본부는 각 금고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의 지표를 활용해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 인근 우량 금고와 합병하는 작업을 도맡는다.

금고구조개선본부 출범 이후 새마을금고의 부실 금고 구조조정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0~2023년 연간 1~6곳에 불과했던 합병 금고 수는 본부 설립 첫해인 2024년 12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25곳까지 늘어남에 따라 향후에도 전담 조직을 통한 강도 높은 부실 금고 조정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안재선 기자



글로벌 조경 설계회사인 그랜트 어소시에이츠의 대표작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대우건설

대우건설, 글로벌 기업과 성수4지구 수주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설계 아를
그랜트 어소시에이츠와 협업 진행

대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수주를 위해 설계부터 건축구조, 조경까지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는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을 준비하며 세계적인 구조 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아를(ARUP), 조경·공간 설계 전문인 그랜트 어소시에이츠와 협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사 모두 영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국내 초고층 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구조 설계에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조경·공간 설계를 결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층인 679m 높이의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을 비롯해 632m 높이의 ‘상하이 타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등 세계적인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해 왔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 요구되는 고난도 구조 시스템 설계와 풍환경 해석, 성능 기반 내진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아를은 최고 높이 250m에 달하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고층 및 초고층에 최적화된 구조시스템 설계, 지진 및 풍하중에 대비한 구조 안전성 확보 등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글로벌 조경 설계 전문기업이다.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 런던 린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 외부 공간을 구현해왔다.

이번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초고층 건축과 한강, 성수 지역의 도시적 맥락이 조화를 이루는 외부 공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인과 연계한 경관 계획과 단지의 정체성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하이엔드 조경 디자인을 통해 차별화된 조경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설계를 위해서는 미국의 마이어 아키텍츠(Meyer Architects)와 협업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드파인 연희’ 청약 1순위 경쟁률 44대1

‘드파인 연희’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4대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 37.8대 1에 이어 두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드파인 연희 1순위 151가구 모집에 6655명이 신청해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44.1대 1이며 유형별로는 59㎡A형 경쟁률이 66.2대 1로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은 45가구가 공급되는 인기 평형인 만큼 신청자가 3000명에 육박했다. 이어 84㎡A형 55.6대 1, 59㎡B형 44.9대 1, 84㎡B형 35.7대 1, 115㎡B형 34대 1, 74㎡C형 33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드파인 연희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재개발 단지로,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다.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출시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드파인’이 서울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곳으로 관심을 끌었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계약은 내달 8~10일로 예정돼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